‘횡단보도에 넘어진 할머니 병원에 직접 후송’

전주 우림중 최수빈 · 배윤서 · 박민지양 휠체어 빌려 할머니 모시는 기지 발휘

전주 우림중 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양〈사진 왼쪽부터〉.

전주 우림중(교장 배주열)에 훈훈하고 감동적인 미담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로부터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최수빈, 배윤서, 박민지 학생은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경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사거리 신호등을 급하게 건너다 도로 턱에 걸려 넘어져 있는 70대 후반의 할머니를 발견하고 바로 달려가서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세워드리려 했으나 통증을 호소하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학생들은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함을 직감하고 학생 한 명이 인근 정형외과로 달려가서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기 중인 구급차가 없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 휠체어를 빌려 가져오는 기지를 발휘했다. 학생들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할머니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행은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지난달 25일 학교를 방문하시어 그때 도움을 준 학생들을 꼭 찾고 싶다고 하시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할머니는 3만원이 든 봉투 3개(총 9만원)를 학교 측에 전달하면서 학생들과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아 어렵다하시며 봉투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흔히들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 위할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기성세대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주 우림중 학생들의 보이지 않은 선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으며 선행을 베풀고도 그것을 내보이려 애쓰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한없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정해은 기자

김제농협 이정용 조합장, 농촌 일손돕기 실시

김제농협 이정용 조합장은 지난달 31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전북지역본부 강태호 본부장과 함께 김제시 교월동 덕산마을 인근의 김신명씨 논에서 농심을 위로하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본보 6월 1일자 6면〉

이날 김제시 죽산면에서 실시된 ‘사료용 벼 시범재배 파종 시연회’에 참석차 김제에 방문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김종회 국회의원이 건의한 우리지역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보리초과생산량 1,000톤의 수매도 약속하여 행사장에 참석한 지역농업인과 농업관계자들의 기대에 보답하였다.

이정용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실생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농협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반디수화합창단, 무주산골영화제 개막 식전 공연 참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재) 반디수화합창단이 6월 2일 19시,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 식전 공연에 참가하여 수화와 율동을 아름답게 펼쳐내고자 한다.

반디수화합창단은 2015년 2월에 결성하여 엄마와 자녀 18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6개국 다국적 수화합창단(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이다.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별 헤는 숲속, 영화 보는 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와 손으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반디수화합창단이 함께 어울러져 반짝이는 반딧불이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322-1130)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공 남원지사, 산동초 방문 물 해설가 초청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지난달 31일 남원시 산동면에 소재한 산동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의 물과 그 물을 담는 물그릇인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남원지역의 문화와 역사, 생태환경 등과 어우러진 농어촌용수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하고,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내 고향 물 해설가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동철 물 해설가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물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에 설명하고, 그 동안 먹는 물에 대해서는 홍보와 체험교육 등은 다각화되어 있었으나, 농어촌용수의 중요성과 이 물을 이용하면서 만들어지는 농어촌의 가치들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으로, 이날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대 공대 자작 자동차 동아리, 전국 경진대회 ‘금상’ 수상

전북대학교 공대 자작 자동차 동아리 ‘A.R.T-ev17(Automobile Research Team · 지도교수 오영택)’ 학생들이 최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열린 2017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전기자동차 경주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에 대해 가속성능 및 제동안전과 제동력을 평가하는 짐카나 부문, 그리고 주행 성능 등을 두루 평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팀은 총 점수 955점을 받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대팀은 가장 많은 배점(40%)이 주어진 주행성능 부문에서 45Km를 1시간 3분 57초에 달리며 전체 1위의 성적을 올렸다.

전북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대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수많은 실전 테스트를 통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일반 승용차에 사용되는 형식을 자작 자동차에 적용했고 속도나 주행거리,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계기판을 설치해 주행 성능 부문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을 낼 수 있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최진선 · 김지훈 · 박찬식(기계공학과) · 문지환(기계시스템공학과) · 오승환(생물산업기계공학과) · 김성현(융합기술공학과) · 김한음(기계시스템) · 이기령(기계설계공학과) 등이 참여했다. /정해은 기자

결 혼

▲박혁(전주중부새마을금고 근무, 박종호 전 덕진구청장 · 현 전북도전주장학숙원장 · 김순자씨 아들)군 · 오세희(오병남 · 김미화씨 삼녀)양= 일시: 6월 10일(토) 오후 1시,장소: 전주N타워 컨벤션웨딩 2층 아이리스홀, 연락처: 박종호(010-6600-9107)

순창지역자활센터, 옥천인재숙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는 센터 소속 자활기업인 (유)두레건축(대표 곽병현, 육근용) 및 (유)순창올크린(대표 강남훈, 안준표)과 함께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옥천인재숙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정부의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참여시켜 자활역량을 높이고 자활기업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성공에 매진해 온 기관이다.

한승연 센터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자활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온 기업에서 지역의 인재양성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여질 장학금을 쾌척한 것은 뜻 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는 장학사업 뿐 아니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사업과 후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휴비스, 부안초에 유니폼 지원 위한 지원금 전달

휴비스는 1일 부안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부안초 교장과 축구부 학생들, 그리고 휴비스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폼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희망키움 유니폼’ 행사는 휴비스의 ‘희망키움 지원사업’ 중 하나로 전주 초촌초, 이리동산초등학교에 이어 올해로 3년째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희망키움 유니폼 행사의 대상이 된 부안초등학교 축구부는 지난 1996년 창단해 국내 다수의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 및 준우승 등을 거둔 실력 있는 팀이다. /안재용 기자